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6)

# 事成雄據天下

사 성 용 거 천 하

일이 성공되면 천하에 응거하리라.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政界)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한창이다. 그 갈래를 보면 이른바 586세대와 그 후속세대의 갈등, 동서지역 간의 갈등으로 나뉘는 듯하지만, 목표는 정권을 잡는데 있을 터이다. 말하자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어 영웅으로 천하를 점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꿈은 정치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것일 거다.

그중에는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끔 '삼국지'를 말하면서 '책사(策士)'나 '정략(政略)'을 꺼내 드는 경우가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지략가들의 지략을 현재에도 써 보려는 마음인 듯하다.

삼국지 하면 권력을 손아귀에 8할쯤은 넣었다가 양아들 여포(呂布)에게 죽은 동탁(董卓)이 쓴 피가 생각난다. 후한 말 황제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10 상시(常侍)가 권력을 움켜쥐고 국가를 유지하던 질서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몰두하는 바람에 왕조는 질서를 잡을 힘조차 없어졌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에 누른 피를 두른 이른바 황건적(黃巾賊)이 관아를 공격하였다. 극도로 무질서가 행해졌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에 서부지역인 감숙과 사천지역에서 군사적 강자가 있었다. 동탁(董卓)이었다. 그는 혼란해진 세상을 보면서 과거의 시스템 통치의 시대는 가고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무력을 가지고 후한의 도읍인 낙양(洛陽)으로 진출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그는 군사를 끌고 낙양으로 들어갔지만, 그리 숫자가 많지 않자, 밤중이면 군사를 조용히 밖으로 뽑았다가 날이 밝으면 복치고 나팔 불면서 낙양성으로 들어가기로 여러 날 하였다. 적은 수의 군사를 뺏기 기하는 피를 쓴 것이다.

그리고 그 허장성세(虛張聲勢)로 영제(靈帝)가 죽은 다음에 하태후(何太后)에 의하여 황제에 오른 14살짜리 유비(劉備)를 폐위시키고 9살짜리 유협(劉協)을 황제로 세웠다. 그뿐이 아니었다. 영제가 죽은 뒤에 그 아들 유변을 세워 황제로 삼았던 하태후를 압박하고 드디어 집살(鳩殺, 毒殺)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피가 발취된 셈이다.

뒤를 이어 동탁은 가장 높은 관직인 상국(相國)이 되니 황제에게 말씀을 올리거

나 절할 때도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고, 조정에 들어설 때도 종중걸음을 걸지 않아도 되고, 황제가 있는 전각에 오를 때도 검(劍)을 차고 신을 벗지 않도록 하였고, 인사권을 틀어쥐고 관직을 임명하였다. 천하에 응거하는 데까지는 8부 능선이나 9부 능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그 후 역사의 주인공은 동탁이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데 다 아는 대로 후한의 마지막 황제이며, 동탁이 세운 황제인 헌제(獻帝)는 나라를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에게 선양(禪讓)하여 환왕조(漢王朝) 황제의 통서(統緒)를 위왕조(魏王朝)로 넘어간단다. 물론 이에 찬성하지 않은 손권(孫權)과 유비(劉備)가 반발하여 새 왕조를 세우는 바람에 전하는 셋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유리한 고지(高地)를 점령하였던 동탁(董卓)은 어디에도 영웅(英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

왜 그러할까? 그가 같았으면 당시에 최강의 무력을 지닌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일로 일관하다가 동부지역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허장성세로 일단 성공했는데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을까? 후속 조치나 준비가 없었다. 같이 일한 사람을 잃은 것이다. 그러자 각자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동부지역 사람들이 원소(袁紹)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동탁을 반대하는 연합전선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동부지역 사람들의 집단 반대에 부딪힌 동탁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부지역인 장안으로 황제를 데리고 천도하였다.

이것 역시 그로서는 피를 낸 것이다. 아직 형식적으로는 황제의 명령이 그대로 권위가 있었기에, 그는 황제(皇帝, 獻帝)를 잡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었으니, 대세를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작은 피는 있었지만 왜 동부지역의 반발에 부딪혀서 서쪽으로 가야 했는지에 대한 긴 안목은 없었다. 그가 역사를 단순히 점(點)의 집합으로만 보지 않고, 전후좌우가 상호 작용하며 전개되는 선(線), 혹은 면(面)으로 통찰하는 안목이 있었다면 설사 동부지역이 단결하여 그에게 대항한다고 하여도 뚫고 나갈 방법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움츠러들며 그 동생 동민(董민)과 조카 동황(董瓌)에게 군사

권을 맡겼고, 그 종족(宗族)에게 벼슬을 주어 조정에 늘어서 있게 하였다. 그 위에 그의 시첩(侍妾)이 낳은 젓먹이 아들에게 제후로 책봉하여 금인(金印)과 자색(紫色)의 인수(印綬)를 주어 노리개로 삼게 하였다. 또 섬서성(陝西省) 미현(郿縣)에 보루(堡壘)를 축조하게 하였는데 높이가 두께가 7장(丈)씩으로 하고 30년간 먹음 양식을 저축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한 다음에 그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천하에 응거할 것이다.'라고 하더니, 자신이 없었던지 뒤에서 말하였다. '이루지 못하여도 이것을 지킨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충분하다.' 보루를 쌓고 양식을 저축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니 그의 안목은 너무 작았던 셈이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종족 말고는 없는데 그 지위와 부(富)가 지켜질 수 있을까? 결국 그가 아끼며 아들로까지 삼았던 이성(異姓) 여포(呂布)에게 죽는 것으로 끝났다. 그가 지키려고 하였던 미현의 보루(堡壘)도 소용없고, 간난 아들에게 준 제후의 인수(印綬)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황제가 되는데 9부 능선까지 올라갔어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동탁이 조금만 참고 천하가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보면서 이우하는 세력에게 민심을 줄여주었다. 그를 반대하였던 원소와 공손찬(公孫瓚)이 갈라져서 동부지역이 약화 되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큰 눈으로 판세를 읽지 못한 까닭에 좋은 기회가 오는 것도 놓쳤고, 자기 세력의 분열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요즘은 정치권에도 스스로 대권의 8부 능선이나 9부 능선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동탁처럼 자기 식구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동탁은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는데, 지금이라고 자기 식구만 챙기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까? 단연코 역사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일은 없었다. 우리 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다. '천하의 재물을 천하에 쌓아 두라.'라는 말도 있다. 모두 공적(公的)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전체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작은 피로 한다면 동탁과 닮은 결과가 기다릴 뿐인 것이다.

## 안양지역종친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권정걸 이임회장(왼쪽), 권용준 신임회장



권순달 고문(왼쪽에서 세번째)과 권용준 신임회장 가족들

안양지역종친회 회장 이취임식이 1월 16일 오후 6시에 마블리에 평촌점에서 권영창 대총회 회장, 이호형 모타리클럽 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안 편집국장, 권순팔 고문, 권희철 고문, 권정섭 고문, 권윤식 고문, 권기성 전 안양경찰서장, 권미순 여성회장, 권오흥 사무국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용준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권정걸 이임 회장은 지난 7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회원과 임원들이 톡톡물쳐 한 분도 불평불만 없이 종친회 발전을 위해 도와주셔서 고맙다. 신임 권용준 회장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회장 취임식에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아버님이신 권순팔 고문님도 나오시고, 사모님을 비롯해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까지 참석했다. 감진년 청룡의 해에 모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준 신임 회장은 초대 회장 권일상 회장이 하늘에서도 지켜볼 것이다. 3대 권윤식 회장과 4대 권정섭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한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어려울 때 일가끼리 도와주는 종친회로 이끌어 가겠다. 우리 미래를 위해 안동권씨 가문이 번성해야 한다. 종친들이 번성하려면 날 때부터 금일봉 주고 육아도 잘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마다 금일봉 줘야 한다. 국가정책도 바뀔 수 있게 안양종친회부터 씨앗을 뿌리겠다. 인기 동안 애경사 잘 챙기도록 하겠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줘야 한다. 그런 종친회가 되도록 하겠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영창 대총회장은 추사에서 작년 5월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총회장에 추대되어 안동권씨 1100년을 맞이하

여 대변력을 하려 준비하고 있다.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금나라 태조 아골타가 시조 태사공의 후손임을 고증하고 시조 태사공의 동상을 건립하며 유적지를 성지로 조성하려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장 및 관련된 각 성씨를 찾아다니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대중회의 살림살이는 건물 월세와 홍보대금 및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보대금은 20%밖에 수납이 안된다. 우리 종친들이 홍보를 많이 봐야 하는데 안양에도 부탁드린다. 능곡장학회는 장학회 사무는 대총회로 이관되었다. 이사장직도 곧 넘겨줄 것으로 믿고 있다. 앞으로 장학금은 능동장학회 이외에도 개인이나 문종 및 기업체 등에 1구좌에 100만원, 5구좌에 500만원, 10구좌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좌별로 장학금을 모집하여 장학회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안양종친회가 톡톡물쳐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니 보기 좋다. 크게 더 발전하기를 기원드린다. 저 또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규회장 이취임을 축하한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정걸 이임 회장은 그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임 권용준 회장은 권정걸 이임회장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권영창 대총회장과 권오상 사무총장에게는 선물을 주었다.

안양지역종친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권용준 신임 회장의 아버지 권순팔 고문과 부인 한기남 여사를 비롯해 큰아들 권옥상과 둘째 아들 권영구, 며느리 권민영, 손자 권시은 등 4대가 참석하여 축하해 주는 매우 뜻깊은 취임식이었다.

권행안 편집국장



## 복야공파 화원군중회 향사 봉행



화원군중회는 2023년 11월 17일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은2길 82-3에 소재하는 화원군[花原君, 휘 중달仲達, 14세, 복야공파조 4대 주손] 묘소에서 2023년 향사를 봉행하였다.

초현관 권길상(36세, 부산), 아현관 권혁철(36세, 충북 음성), 종현관 권오형(35세, 충북 음성), 집례 권영록(36세, 함천), 축 권홍근(37세, 함천)으로 분정하여 행공하였다.

참제원은 50여인이었으며, 제수성금으로 권경탁(서울 예천군 호참공계) 10만원, 장원중중 일동 10만원, 양평중중 군수공 영화계 20만원, 권성근(총무, 산청군 단성면) 10만원, 충북 음성 화성위상김계 종중 20만원, 권길상(초현관, 부산, 감정공중회장) 10만원, 권갑현(종보 편집위원장, 경북 영주) 10만원이 담지하였다.

총무 권오초

## 서울산악회 2024년 새해 첫 산행



2024년 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산악회 첫 산행이 시작되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회원 30여 명이 만나서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남한산성 둘레길을 1시간여 동안 걸었다. 잠시 휴식을 하는 중에 여자 회원 한 분이 오메그를 끊어와서 쌀쌀한 겨울 아침 날씨에 약간의 약주로 몸을 녹이고 답소를 나누면서 산행을 했다.

오후 2시경 하산하여 사전에 예약한 5호선 개논역 부근 제주축돈본가 식당에서 늦은 점심에 약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복 회장은 금년 한해도 산악회가 좀 더 도약이 될 수 있게 회원 여러분의 성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마침 2월 4일이 임춘이라서 회장이 직접 쓴 임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을 1부씩 새해 선물로 나누어 주고 오후 4시경 다가오는 설 명절 다복하게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2월 산행 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모든 산행 일정을 마쳤다.

권영복 서울산악회 회장

## 합천 죽헌정사(竹軒精舍) 정례회 개최



지난 1월 6일 10시에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에서 죽헌정사(竹軒精舍) 정례회가 열렸다. 인근의 한학자와 주민, 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죽헌정사 정례회는 정통 유학자의 맥을 이어 온 설암 권옥현(1912~1999) 선생의 집안 선·후대 한학자 인연(一軒) 권재환(權載丸), 현암(현 권) 권재성(權載性), 설암(雪岳) 권옥현(權玉鉉), 경암(敬菴) 권정현(權淸鉉) 등 네 분을 기리고 선양하는 모임을 1935년계부터 문학생 위주로 제각기 결성해 운영하던 계모임을 통합 개최하면서 불인 이름이다.

또한, 죽헌정사는 부산, 경남 일대에서 유학자로 존경받는 설암(雪岳) 권옥현(權玉鉉)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재이다. 선생은 합천 향리에서 부산 이후 금남서당을 열어 후학 양성에 진력하는 등 평생을 한학 연구, 보급에 정진하신 분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설암 권옥현(1912~1999) 선생의 장자인 미남(薇南) 권사영(權四榮, 36세 복야공파) 공(公)을

기리는 담락계(湛樂契) 출범식도 가졌다. 미남 권사영 공은 합천 대병 출신으로 부산에서 자수성가한 기업가(세일사 회장)로서 앞의 네 분과는 결이 다르나, 생전에 죽헌정사 건립(1992)과 설암 문집 수집·발간(2003), 삼산재 재건 등 유학과 문종에 쌓아놓은 공덕이 크고도 높다. 담락계는 이를 추앙하고, 공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부산, 대구, 합천의 일족과 이웃 주민이 뜻을 모아 결성하였다. 담락(湛樂)은 시경(詩經)의 '형과 아우가 화락(和樂)하고 즐겁다.'란 구절에서 따온 말로 이는 곧 가문의 즐거움은 형제 우애에 있음을 뜻한다.

설암 선생의 제자인 한학자 정영만 씨는 담락계 출범 추사에서 "선조의 덕업을 잇고 형제간 우애를 다지며 이웃 주민과 화락하려는 담락계는 요즘 세대와 다소 동떨어진 감은 있으나 지역 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 현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관"이라며, "오래되고 아름다운 전통의 양속(良俗)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사무국장 권재영

